

放射線管理

서 두 환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로관리실장

5. 使用目的에서 본 放射線測定器의 種類와 특징

지금까지 기술한 바와 같이, 방사선검출기는, 대상으로 하는 방사선의 종류와 에너지에 따라 감응도가 다르며,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한편, 방사선측정기는 이들 검출기자체를 사용하여 사용목적에 따라 검출기자체를 가공하거나 특별한 장치를 붙이거나, 또는 계수, 증폭회로, 표시방법 등도 각각으로 고안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사용목적에서 본 측정기의 종류, 특징 및 사용상의 주의에 대하여, 작업자가 직접 장착하거나 사용하는 것에 한하여 간단히 기술한다.

5.1 個人外部被曝線量測定器

개인의외피폭선량측정기에는

- (1) 일정기간(예를 들면 1주간, 1개월, 한 작업기간)중의 직접선량측정을 목적으로 한 측정기
- (2) 매일의 피폭선량체크를 목적으로 한 측정기
- (3) 일정한 선량률이상으로 되었을 때 경보를 내어, 선량률변동의 감시를 목적으로 한 측정기
- (4) 계획피폭에 근거를 둔 작업에서, 일정한 집적선량이상으로 되었을 때 경보를 내는 측정기

등이 있다. 측정기중에는 상기의 두가지 이상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측정기별로 그 특징을 기술한다.

1) 필름배지(Film Badge) 線量計

필름배지선량계는 일정기간의 집적선량을 측정하는데 적합하며, 가장 오래전 부터 사용하고 있는 측정기이다. 이 선량계는 한장의 필름으로 X선, γ 선, β 선, 열중성자선 등의 종류별 선량, 에너지, 입사방향 등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성능이 안정하며, 교정이 쉽다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가장 많이 그리고 주측정기로서 사용하고 있다.

필름배지는 그림 30에 나타낸 것처럼, 감도의 에너지의존성이 크기 때문에, 원자력시설 등에서 사용할 때는 30keV~3MeV의 에너지범위에서 에너지의존성을 평탄화시킨 광범위용 필름배지를 사용한다. 그러나 방사선의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는 진단, 치료 등의 병원에서는 연X선용 필름배지를 사용한다.

필름배지선량계의 검출한계선량은 1개월 사용하였을 때 10mrem이며, 통상의 개인피폭관리에는 충분한 감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현재의 개인피폭선량 기록방법이 1mrem 자리수는 사사오입시켜 10 mrem 단위로 기록하도록 되어있고, 필름배지는 일정기간의 집적선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등으로도 합리성을 가진다. 최대측정가능 선량은 세장의 필름을 사용하여 1,000rem이다.

필름배지로 선량평가하는데는 현상처리를 위한 암실, 농도측정과 선량환산 등 특별한 시설이나 장치가 필요하고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매일의 피폭선량측정에는 부적당하다. 또 포켓선량계처럼 선량값을 직접 눈으로 판

독할 수 없다는 불편함도 있다. 반면에, 현상 처리, 선량평가할 때마다 동일유제번호의 표준조사한 필름을 사용하므로써 대량의 측정기를 동시교정할 수 있으며, 측정의 확실성도 높고, 필름이 증거로서 남는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는 현상처리에서 선량의 기록까지 자동화된 장치가 개발되어 있고 집적선량의 주측정기로서 우수한 성능을 갖는 측정기이다.

필름배지선량계를 사용할 때는 배지케이스에서 필름을 끄집어 내지말 것, 오염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사용할 때는 비닐을 덮어서 사용할 것,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할 것, 납으로 된 방호구를 착용하여 작업할 때는 방호구 안쪽에 필름배지를 착용하는 것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2) 熱螢光線量計

열형광(thermoluminescence)선량계(TLD)는 일정기간의 집적선량을 측정하는데 적합하다. 이전부터 감도가 높다는 것, 감도의 에너지의존성이 적다는 이유로 주목되어 온 측정기였지만, 최근 시설의 출입관리와 병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성되어, 매일의 선량체크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부측정기로서 널리 사용하게 되었다.

TLD는 γ 선의 선량을 측정할 때는 γ 선용 소자를 사용해야 하는 것처럼, 대상으로 하는 방사선의 수만큼의 소자가 필요하고, 측정도 개발적으로 해야할 번거로움이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γ 선용 소자만을 사용하여 매일의 피폭선량을 체크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복수개의 소자를 장착하지만 γ 선용 소자가 일정기준 이상이 되었을 때만 다른 소자에 대해서도 측정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

TLD의 검출한계선량은 퇴색(fading)이 적기 때문에, 사용기간에 무관하여 거의 0.1 mrem이며, 최대측정가능선량은 1,000rem이다. 이것은 필름배지선량계와 비교하여 검출한계가 한자리수 낮고, 그리고 1개의 소자로 광범위의 선량측정이 가능하다는 다른 선량

계에는 없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선량측정은 가열 또는 광조사에서 선량표시까지 일체로 된 소형측정기로서 단시간내에 측정할 수 있고, 특별한 시설, 방을 필요치 않다.

TLD는 반복사용이 가능하며, 조사선량이 낮을 때는 100회정도 사용해도 특별한 성능 변화는 없다. 선량계의 교정은 한개마다 해야 한다. 특히 감도의 오차에는 주의를 해야 한다. 즉, 같은 선량을 조사시켜도 소자에 따라 어떤 것은 열형광량이 많거나 적어도 소자고유의 감도차를 가진다. 형광의 재현성이 좋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감도의 요동은 측정치의 정확도가 나빠지므로 정확한 측정을 할 때는 소자고유의 감도특성을 전산기에 기억시켜 측정할 때마다, 그 값을 이용하여 보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TLD의 사용상 주의는 필름배지선량계의 경우와 비슷하지만, 소자를 직접 손으로 만지거나 상처를 내면, 트리보(tribo 마찰)형광이라는 이상형광을 내어 측정치에 큰 오차를 초래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3) 포켓線量計

포켓선량계는 단기간의 집적선량측정에 적합하며, 간단한 충전기로 영점조정할 수 있고, 선량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오래전 부터 사용하고 있고, 현재도 매일의 선량체크 등 부측정기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포켓선량계로서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벽재로 베이크라이트 또는 플라스틱을 사용한 γ 선용이지만, 그 이외에 벽재에 붕소(B)를 바른 열중성자용, 합수소유기질막을 이용한 속중성자용, 벽재의 알루미늄(Al)에 구멍을 낸 β 선용 등이 있다.

포켓선량계는 가장 감도가 높은 것으로 최대눈금이 100mrem에서 100rem까지 있으며, 예상피폭선량에 따라 적절히 선량계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포켓선량계는 감도의 에너지의존성이나 방향의존성이 적다는 이점을 갖는 반면에, 충격으로 지시침이 흔들리거나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리크로 지시침이 흔들리는 결점이

있다. 따라서 사용할 때는 부딪히거나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동시에, 습도가 높은 곳에서 사용할 때는 캡을 덮거나 비닐봉지로 방습해야 한다.

포켓선량계는 기종에 따라 최대측정가능선량이 결정되어 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최대눈금이 200mrem인 선량계를 사용하여 지시침이 그 값을 넘어서 정지하면 200mrem 이상 어느만큼의 선량을 피폭하였는지를 알 수가 없다. 이런 경우는, 곧바로 주측정기로 선량평가해야 한다. 반대로 이와 같은 경우를 예측하여 필요이상으로 최대눈금이 큰 선량계를 사용하면 저선량영역에서 판독오차가 커지기 때문에 부적당하다.

포켓선량계를 통상적인 방사선작업에 사용할 때는, 지시침의 영점조정을 위한 수고시간을 생략하여, 사용전의 지시눈금과 수용후의 지시눈금의 차이로부터 선량을 구하는 것이 실제적이다. 선량의 자동판독장치와 데이터의 전산기투입은 현재의 기술로서 쉬운 일이지만, 실용화되어 있지 않는 것은 측정정도, 성능면에서 우수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포켓선량계의 사용상의 주의는 전술한 두가지 선량계와 같지만, 특히 충격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하고, 끈으로 목에 걸어서 앞가슴 포켓에 크립으로 꽂아서 사용한다.

4) 警報付着個人被曝線量計

경보부착개인피폭선량계는 단기간의 집적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동시에, 사용전에 집적선량의 경보기준을 설정하여 집적선량이 그 값을 초과하였을 때 경보를 낼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 경보기준을 선량률로 설정할 수 있고, 집적선량이 디지털로 표시되어 직접 눈으로 읽을 수 있는 포켓선량계와 같은 특징 이외에 경보설정이 가능한 새로운 기능을 갖추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널리 사용하게 되었다.

경보부착개인피폭선량계에는 검출기로서 소형의 GM계수관을 사용한 것과, 전리함을 사용한 것 등, 두가지가 있다. 따라서 대상이 되는 방사선은 X/γ선 뿐이다. 선량측정범위

는 1mR에서 1R 또는 5R까지 디지털로 표시되며, 경보설정기준은 기종에 따라 미리 결정되어 있으며 4~9곳이다. 검출기로서 GM계수관을 사용한 것은 필터를 붙여 에너지특성을 평탄화시켜 적도록 되어 있지만, 그래도 30~120keV의 범위에서는 20% 정도의 증대가 생긴다.

경보부착개인피폭선량계는 전원의 ON, OFF 스위치, 경보기준의 설정 등은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여 덮개를 열지 않으면 조작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집적선량의 확인만을 할 수 있도록 측정기의 관리와 사용상의 편리성을 갖추어 있다. 또 선량측정치를 외부로 끄집어내는 단자가 있고, 선량판독, 기록 등을 자동화한 시스템도 실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의 출입관리에도 병용이 가능하다. 전원으로서의 충전식건전지를 사용하고, 연속사용가능시간은 10~30시간정도이기 때문에, 충전을 자주 해야 한다.

경보부착개인피폭선량계의 특징은 경보를 내는데 있다. 따라서 통상적인 방사선작업에 대한 매일의 피폭선량체크, 그 외에 계획피폭을 설정한 방사선작업의 피폭관리, 시설의 점검, 순찰 등에 가장 적합한 측정기이다.

사용상의 주의는 전술한 1), 2), 3)과 같지만, 전자부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적인 충격에 약하여,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5.2 서베이미터(Survey Meter)

서베이미터는 작업장소나 사람이 출입할 가능성이 있는 구역의 공간선량률, 입자속밀도, 표면오염밀도 등을 측정하는 휴대형 방사선측정기의 통칭이며, 용도, 방사선의 종류와 에너지, 검출방법에 따라 몇가지의 형식이 있다. 어떠한 용도일지라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1) 소형, 경량(중량: ~3kg이하, 크기: 30 × 15 × 15cm 이하)
- (2) 취급간단
- (3) 보수, 교정이 용이(전지의 교환, 감도

